

뉴파워플라즈마, 핵심장비 수요증가로 1분기 호실적 달성

- ▶ 2025년 별도기준, 매출 391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 달성...전년비 각각 21%, 48% 증가
- ▶ 글로벌 반도체 공정 미세화 트렌드에 따른 성장 가속화 기대

<2025-05-16> 뉴파워플라즈마가 1분기 별도기준 양적, 질적성장을 동시에 거뒀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플라즈마 선도기업 뉴파워플라즈마(144960, 대표이사 양재영)가 경영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뉴파워플라즈마의 별도기준, 1분기 매출액은 391억 원으로 전년대비 20.9%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72억 원, 당기순이익은 56억 원으로 각각 47.9%, 19.8% 증가한 호실적을 달성했다.

금번 실적증가의 배경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트렌드에 따라 플라즈마 기반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뉴파워플라즈마는 핵심 제품군인 플라즈마 세정 장비, RF 전원장치, 매처(Matcher) 등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국내외 거래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공정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플라즈마 기반 장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고객 기반을 중심으로 수주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출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파워플라즈마는 지난해 UTG(초박막 강화유리) 전문기업 도우인시스를 인수하며 디스플레이 산업 내 포트폴리오를 확장했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외 타 산업으로의 진출도 모색 중이다.